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2010.vol.106 11/12

스페셜테마

건강한 삶, 심장과 혈관을 다스려라

고혈압 · 심근경색 · 심장판막질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항락 교수

인생예찬 이방현 명예교수

아름다운 실천 이광수 명예교수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여러분의 마지막 잎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에는 선선해질 가을을 기다렸습니다.
잠깐 얼굴을 내밀었던 가을이 가니
창밖으로 나뭇잎을 벗어낸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지 끝에 간신히 매달려있는 나뭇잎을 보자니
유명한 소설 <마지막 잎새>가 생각이 납니다.
비록 그림이었지만 마지막 잎새를 보며 희망을 가진 주인공처럼
여러분 마음에 긍정의 기운을 넣어드리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되겠다고 다짐도 해봅니다.
이번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에서는 ‘심혈관질환’을 말하려 합니다.
‘심혈관질환’은 추운 날씨로 인해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급격한 기온 변화로 혈관 내 저항 증가와 심장 근육의 산소 소모량이 많아져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이 질환은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한 질환이므로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에서는 ‘심혈관질환’ 중에서 고혈압, 심근경색,
심장판막질환에 대한 정보를 담아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한 호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한 해가 마무리 되는 연말을 계기로 주변을 한 번 돌아봐 주기를 바라며
한양대학교의료원도 더 큰 감동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보여주신 많은 성원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박 성 수〉

SPECIAL THEME

심혈관질환 대표적 질병
고혈압 · 심근경색 · 심장판막질환

우리나라의 한 해 심혈관질환 관련 사망자가 약 6만 명. 그러나 우리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심혈관질환은 고혈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 가운데 자신이 고혈압인 것을 인지하는 비율은 50%에 그친다. 노년에 가장 치명적인 심혈관질환의 증상과 대처방법을 소개한다.



02 _ 즐거운 편지 | 여러분의 마지막 잎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04 _ 안녕하세요, 선생님 | 의대로 간 공대생, 소화기 분야 새 길 연다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항락 교수

08 _ 인생예찬 | 펜을 든 문학의사 이방현 명예교수

10 _ 아름다운 실천 | 아름다운 본보기 아름다운 남김 이광수 명예교수

SPECIAL THEME

12 _ 혼한 만큼 오해도 많은 - 고혈압에 관한 진실

14 _ 혈관, 잘 통(通)해야 할텐데 - 심근경색 알아보기

16 _ 예방법이 없어 더욱 위험한 - 심장판막의 외과적 치료

18 _ 진료과 들여다보기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영상의학과

20 _ 100세까지 88하게 | '2080 운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22 _ 베스트 파트너 | 김윤호내과의원 김윤호 원장

24 _ 사랑수첩 | 내 인생의 커다란 나무

26 _ Dr.오페라를 말하다 | 불꽃같은 사랑, 빈첸초 벨리니 <노르마>

28 _ Dr.Movie | 나를 죽이고 전체를 살리는 하모니의 힘, 감성의 승리

30 _ Zoom in Focus | 세계최초 '영상유도수술로봇' 개발한
한양대학교병원 김영수 교수

32 _ Hanyang News | 2010년 하반기 정년 및 명예퇴임식 외

35 _ 외래진료시간표 + 문화캘린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喜怒哀樂', 의사로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글/윤진아 사진/김선재

“우리 병원이 지대가 좀 높잖아요(웃음). 강의실을 오가며 24시간 환히 불 켜진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면서 그야말로 청운의 꿈을 품게 된 것 같아요.”

설령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멀고 험난할지라도, 한 번 사는 인생, 기왕이면 남들에게 도움을 주며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었다는 말에 힘이 실린다.

“모교의 교수가 됐다는 건 정말이지 엄청난 영광이자 보람이 아닐 수 없지요. 제 다음 꿈은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국내 최고의 병원과 의과대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치료법 개발의 초석을 마련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기초연구의 산실로 한양대학교병원이 우뚝 서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모교를 지키는 교수로서 자

신이 해야 할 당연한 임무라고 했다. 그러니 이 남자라면 믿고 따라도 좋다. 이항락 교수의 연구는 숨을 쉬고 밥을 먹는 일상처럼 꾸준히 진행된다. 속 편하게 만드는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은 물론이고, 관련 연구를 책으로 출간해 치료법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최근 3년 동안 20여 편의 논문을 써낸 그다. 관련 질환 치료에 있어 누구보다 무기가 많은 셈이다. 지난겨울에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ESD연구회 회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장기별 치료 요령, 병리 판독, 치료 후 경과, 시술기구 사용법, 관련 약제 사용 등 ESD의 모든 것을 총망라한 의학서적 《소화관종양 내시경 치료술의 실제》를 출판했다. 그뿐인가.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소화관운동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관운동학회 학술위원,

의대로 간 공대생, 소화기 분야 새 길 연다



길은 끝나지 않는다. 멈추는 것은 단지 우리 마음에 난 길일 뿐이다. 이항락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참으로 끈질기게, 그리고 치열하게 정진하는 사람이다. 전도유망했던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학생시절,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노라고 했다. 멀쩡하게 잘 가던 길에 유턴 곡선을 그리며 의과대학으로 발을 디딘 까닭은 더 큰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였다.



대한상부위장관학회 전산정보위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학술간사 등을 맡아 짝 찬 하루하루를 살며 연구실 불을 밝히는 참이다.

늦깎이, 그래서 더 견고한 시간

겸손이 도를 지나친 사람이다. 이런 데 이름을 올리기에 자신은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며 난처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한참이나 별세운 이항락 교수는 지켜야 할 원칙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행동에 옮기는 성격 탓에 마흔둘 나이에도 지인들에게서 잔소리 꽤나 들으며 산다. 공인된 에너지이지이기도 하다. 거절하는 법을 잘 몰라 하나둘 떠맡게 된 번거로운 일들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완수해내는

이

항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락





모교의 교수가 되었다는 걸 영광이자 보람으로 여긴다는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항락 교수. 의과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한양대학교병원이라는 한 곳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 곳에 그가 찾던 ‘존엄성’이라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덕분에 생긴 별명이다. 무식해 보인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월등하던 체력도 나이를 먹어가며 서서히 평준화되고 있는 것 같아 자못 걱정된다는 너스레에 미소가 고였다.

“가뜩이나 장점이 없는 사람이 단점만 자꾸 느는 것 같아 큰 일이에요. 사실 가장 큰 단점은 따로 있지요. 제 뎀엔 잘해본 답시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검토하는 습관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의 진행이 두 배로 더딘 편이에요. 아마 우리 스태프들 모두 저 때문에 적잖이 답답할 겁니다(웃음).”

그 답답한 의사를 찾아, 전국을 넘어 세계 각지에서 환자들이 몰린다. “형가리에서 의대에 다니던 20대 초반의 남자 환자가 위암 초기에 저를 찾아왔어요. 내시경을 통해 무사히 암세포를 절제해 건강을 되찾았는데, 수술 전에 이 친구의 아버지가 꼬깃꼬깃한 편지 하나를 제게 건네더군요. 투박한 손글씨로 꼭꼭 눌러쓴 장문의 편지 안에는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어렵게 키워 의대에까지 보내놓은 소중한 아들인데, 이렇게 잃을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만 믿습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지요.” 믿고 찾아와 생명을 맡기는 환자들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365일 비슷한 풍경 같지만 어느 하나 같지 않은 숭고한 일상 속에 그저 온 힘을 다하는 일일 뿐이다.

‘속 편한 세상’ 만든다

좋은 병원에는 우선 명의를 있어야 하겠다. 그 뒤에 믿을 수 있는 첨단장비까지 갖춰져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이다. 세상의 많고 많은 소화기내과와 비교하면 쉽사리 하다. 각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의 협진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에는 실력과 의료진이 각종 첨단기기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치료와 시술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위장관 출혈 치료, 종양 절제, 식도·위 확장술, 담도 결석 제거술, 담도배액술 등 내시경을 이용해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게 되면서 최근 소화기내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내시경 수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수술 방법, 수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내시경 수술 성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학제간 진료와 함께 꾸준한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전 의료진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는 까닭입니다.”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장기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관찰하다 보니 할 일은 끝도 없다.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는 98년 소화기병연구소를 설립해 진단 및 분자 생물학적, 생화학적 연구와 역학 조사 및 소화기 질환의 통계·계몽 사업과 학술 교류 활동을 펼치며 소화기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살면서 한 번쯤 배가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을 찾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화기내과 질환은 한국인에게 가장 잘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조기에 진단된 암 덩어리를 개복이나 복강경 수술 대신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가 있습니다.”

물론 손도 쓰기 전에 갈 데까지 가버리는 야속한 질환도 있다. 발견될 당시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등 전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증상이 뒤늦게 나타나 수술 시기를 놓치는 환자도 많다. 소화기내과는 특히 사람 목숨 왔다갔다하는 곳이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 병원일 터.

“제가 스스로에게 약속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설령 내 환자가 죽더라도, 환자 가족을 만났을 때 떳떳할 수 있는 의사가 되자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말 그대로 온 힘을 다해 진료에 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시경으로 수술할 수 있는데도 개복수술을 받는 ‘과치료’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그의 지론이기도 하다.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내시경으로 간단히 수술할 수 있습니다. 흉터 없이 빠르게 수술이 가능하고, 합병증 가능성도 적어 내시경 수술은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기 위암이나 식도암 등 소화관에 생긴 암 조직을 내시경 기구를 이용해 절제하는 내시경점막하박리술의 경우, 치료내시경기구로 종양만 절제하기 때문에 외과수술과 달리 장기의 기능을 보존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수술 후 합병증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후독하고도 긴 시간들을 버틸 수 있게 한 원동력은 이곳에 그가 찾던 바로 그 ‘존엄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양대학교병원 이름값’ 한다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일할 맛난다는 그는 더 넓은 시야로 미래를 준비하며 대한민국 소화기학을 발전시키는 주춧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인생에 찬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임직원이
만들어가는 '의미' 있고 '흥미로운'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글/오미연
사진/안호성

펜을 든 문학 의사



이방현 명예교수(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진료와 수필 쓰기, 그들의 공통점은 사랑이라는 것. 몸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도 사랑이고 마음이 울적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도 사랑이라고. 수필 속에 사랑을 담으면 되는 것(《계와 물고기》 중)이라고’ 말하는 심장내과 전문의 이방현 명예교수의 모든 철학은 사람을 돌보는 ‘사랑’ 그 자체였다.

바라보고 이해하며 보듬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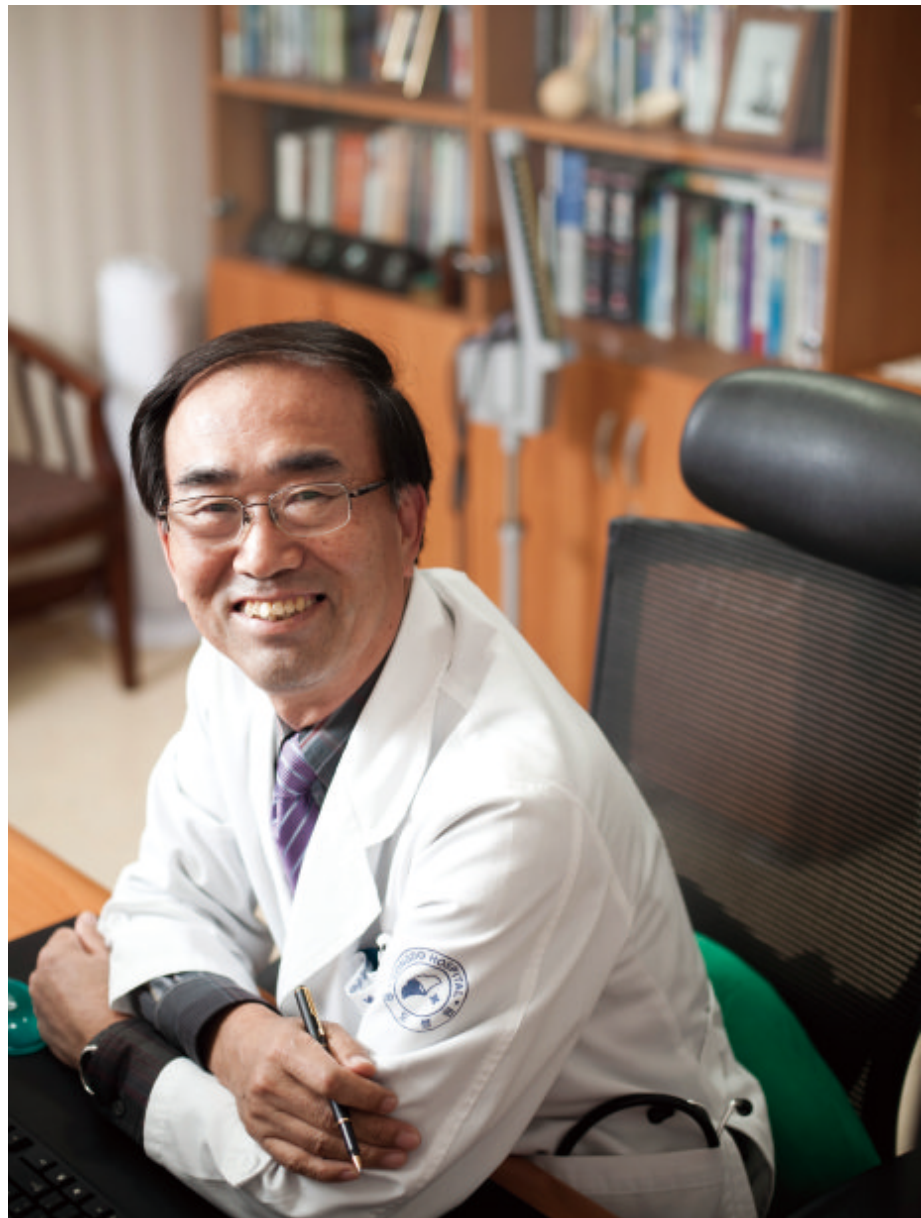
“작가들처럼 작업 공간이 따로 있지 않아요. 늘 생활 속에서 듣고 보고 느끼는 것들이 수필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늘 메모하고 진료를 하다가 틈틈이 글을 쓰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글을 쓰는 시공간이 아니라 대상과 얼마나 잘 통하느냐는 것이죠.”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의사생활을 하면서 피천득을 비롯한 수필대가들이 받은 ‘현대수필 문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성공적인 작품 활동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다.

모든 일에는 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계기가 된다면 환자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인 의사의 소양을 문학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얻은 감동을 끊임없이 메모하고 생각하는데 이는 의사의 의무이자 책임인 학문 연구 자세와 이어진다고. 늘 냉철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이지만 그 기본은 환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라며 믿어왔다. 환자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보듬고 치유해야 진짜 의사라고 말할 수 있다.

30, 한양대학교병원과의 인연

1973년은 이방현 교수가 처음으로 한양대학교병원에 발을 들인 해이다. 레지던트 1년 차인 30세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정균, 김종설, 박경남 교수님들이 이끌어 준 덕분에 심장내과 전문의로의 길이 시작되었다고 그때를 회상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료





와 연구를 하다 미국유학까지 다녀와 활발한 활동을 하다 보니 30년이 지나 두 번째 서른, 60을 맞이한 곳도 한양대학교병원이었다.

대한고혈압학회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12월 첫째 주 마다 고혈압 주간, 건강수칙을 제정했고 전국으로 개원의 연수 강좌를 시작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고혈압학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회장으로 역임하기도 했다. 고혈압 전문의로서 국민의 30%가 고통을 겪는 고혈압 예방과 치료에 일조를 한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그 와중에 꾸준히 수필을 썼던 실력으로 2004년 '에세이 문학' 봄 호에 '헌 구두'라는 작품으로 등단하여 2008년 '현대수필문학상'을 수상하는 뜻 깊은 시절이었다.

젊은 날의 가장 열정적이었던 때를 추억하면 항상 한양대학교병원이 함께 했으므로 이방헌 교수의 한양대학교병원에 대한 애정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환자의 심장을 고치는 것도, 마음을 치유해주는 일.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방헌 명예교수의 기본 철학은 '사랑'과 '관심'이었다.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한다.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열정

늘 긍정적인 마음 때문일까? 숨 가쁜 시간을 지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쉬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이방헌 교수의 계획은 더 촘촘해졌다. 우선 현재 수필을 연재하는 월간 잡지에 계속 글을 기고할 것이며 수필가로서 한국문인협회, 에세이문학회, 수석회, 한국의약사평론가협회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다.

'고혈압의 이해와 치료, 고혈압 홈케어, 고혈압 진료 매뉴얼' 등 세 권의 고혈압 서적을 편찬했던 것처럼 제자들과 저혈압 저서를 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환자의 아픔을 보듬는 의사의 따뜻한 마음처럼 진료에서 느꼈던 것들을 글로 담아낸 수필집을 계획 중이다. 이 모든 것을 문제없이 진행하고자 열심히 운동을 하며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내내 사랑을 기본으로 한 열정과 마음을 강조하는 이방헌 교수를 보며 환자와 후배들을 이끄는 거목인 그를 따라 숲을 이룰 따뜻한 감성을 지닌 의사와 병원이 눈앞에 그려지며 그날이 머지않았음을 예감한다. 🍀

아름다운 실천

한양대학교의료원을 무대로 펼쳐지는,
'나눔 실천'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글/손미경자유기고가

사진/김선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1975년 독일 본(Bonn)과 하노버(Hannover) 대학에서 간이식 외과와 연수를 제외한 모든 시간을 한양대학교병원과 함께 해온 이광수 명예교수는 한국간담체외과학회 회장을 맡았을 만큼 그 분야에 최고 권위자다. 때문에 화려한 정년퇴임식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기존에 없었던 가장 조촐한 퇴임식과 더불어 기부로 마무리를 해 아름다운 본보기를 남겼다.

아름다운 본보기 아름다운 남김

이

광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수



가장 아름답고 조출한 퇴임식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환자를 진료했어요. 그리고 모든 진료가 끝난 저녁에 조출한 퇴임식을 가졌지요. 늘 가져왔던 생각대로 했을 뿐이에요.”

2010년 8월 2일은 이광수 교수가 마지막 환자를 보내고 진료실을 나선 날이다. 의사로서의 모든 열정을 쏟은 곳, 그 깊은 의미가 새겨진 곳에서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기억에서는 심장이 따뜻하게 일렁이고, 또 어떤 기억에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아쉬움이 슬쩍 고개를 든다.

“각자의 생각이 각각 다르듯 나는 내 퇴임식이 조출하기를 바랐어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거나 만류했지만 내 생각은 변치 않았어요.”

대부분의 경우 말은 그래도 막상 상황과 부딪치면 어쩔 수 없이 생각의 전환을 하지만, 이광수 교수는 마음에 품은 소신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 그래서 멋진 퇴임식 제안을 해준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모두들 이해해 줘 고마웠다. 또 기존에 보지 못했던 퇴임식에 참석한 이들은 걱정과 달리 그 조출함 속에서 배어 나오는 특별한 분위기를 특별하게 여겼다. 간소한 음식, 수십 년 간 한 길을 걸어오며 맺었던 가까운 인연들이 전부인 가장 소박하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퇴임식으로 기억되었기 때문이다. 소신을 갖고 일을 시작하기는 쉽지만, 소신대로 일을 마무리하기란 어려운 법. 그런 의

미에서 이광수 교수의 마지막 날은 누구에게나 깊은 인상을 남겼다.

후배들을 위한 그리고 숨기고 싶었던 기부

이광수 교수는 정년퇴임을 하면서 교실발전 기금으로 5천 3백만 원을 기부했는데, 내심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 알려줬다니 마음이 영 편치 않아 인터뷰를 극구 사양했었다. 그럼에도 허락한 것은 오랫동안 함께 해온 한양대학교병원 관계자들의 청을 끝까지 내치기가 어려워서기도 했고, 또 알려져서 더 큰일을 이루는 도화선이 된다면 좋은 일이겠다 싶어서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망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가족 중의 특히 아내가 선뜻 허락해줘서 더욱 기분 좋게 기부할 수가 있었어요. 앞서도 말했듯이 이번 기부가 계기가 되어 후배 의사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해요.”

이광수 교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많은 후배 의사들에 대한 걱정이 크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그 해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염려한다.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기부’로 고민을 해결해 보자는 것이었다.

누군가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시작한다면, 또 그 뒤를 이어 누군가 더 크고 좋은 생각을 해준다면 큰 보탬이 되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광수 교수의 퇴임식이 아름다웠던 것은 이처럼 아름다운 기부가 있어서였기도 하다.

말은 행위의 담보

“독일에서 연수를 할 때였어요. 내가 어떤 의견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묻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말이냐”고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물었더니 기존의 지식을 옮겨왔을 때는 그 출처를 분명해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후 나는 그 구분을 정확히 구분해 왔어요.”

기본과 정확성을 중요시 여기는 이광수 교수는 ‘말은 행위의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또한 변하지 않는 소신이며, 독일 연수 이후 계속해서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그 소신은 두터운 신뢰와 퇴임식을 청렴하게 치를 수 있게 한 바탕이 되었으며, 퇴직 후에도 큰 뒷심이 되어 줄 것으로 믿는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나를 필요로 한 곳에서 나눔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내 퇴임 후 작은 꿈이에요.”

말이 곧 삶이 되는 이광수 교수는 지금은 비워진 시간이며, 그 비워진 시간 속에 무엇을 담을까 세심하게 고민 중이다. 그리고 자신과 세상이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무엇을 위해 꿈을 꾸는 요즘이 행복하다. 🌱

Special Theme

심혈관 질환 1.

글.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신진호 교수

사진. 김선재



흔한 만큼 오해도 많은 질환

고혈압에 관한 진실

고혈압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30%가 갖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무려 절반이 고혈압을 갖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그런데 흔한 만큼 오해도 많고 잘못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경우도 많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모르고 지나다가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늘어난다. 미국심장협회의 문건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이 고혈압에 대해 갖고 있는 흔한 오해에 대해서 짚어보자.

항고혈압 약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불편한 증상이 많다. ●●● 최근에 구할 수 있는 고혈압 약제의 부작용은 매우 미미하다. 항고혈압 약제를 처방 받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여 부작용이 나타나면 곧 바로 주치의와 상의하여 불필요한 고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고혈압 약제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부작용이 없는 약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고혈압 환자는 감기가 들었을 때 약국에서 아무 약이나 사먹어도 된다. ●●●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특정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코막힘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 중에는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성분이 들어 있다. 또, 심장에 부담을 주는 약도 있어서 심장발작이나 뇌졸중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감기약 중에

서 이런 약은 피해야 한다.

항고혈압 약제를 몇 달간 복용하여 이제는 혈압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약을 줄여나가고 중단해야겠다. ●●● 고혈압은 평생동안 지속되는 질환이며 조절은 가능하지만 완치되지는 않는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 용량을 줄이거나 약제를 거르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과일 야채가 풍부한 식사를 하고 잡곡이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지방성분이 적은 유제품을 선택하고 닭고기 종류나 기름이 없는 육류 또는 생선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짠 음식을 피하고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 과일, 야채 또는 지방성분이 적은 유제품에 들어있는 전해질이 도움이 된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매일 최소한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정도

의 신체활동을 유지하며 흡연을 삼가해야 한다.

고혈압이 있으면 머리가 무겁고 신경과민, 식은땀, 수면장애가 나타난다. ●○○ 고혈압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래서 고혈압은 ‘무언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고혈압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혈압을 측정해 보는 길 밖에는 없다.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고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비만이나 흡연과 같이 심혈관에 나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혈압은 정상일 때도 있다. 대체로 고혈압이 있는 사람 중 30% 정도는 자신이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자체를 모르고 지낸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뇌졸중, 심장마비, 심부전, 콩팥기능부전, 시력손실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병원에서는 혈압이 높는데 집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혈압을 재기만 하면 높게 나오는 소위 ‘백의고혈압’이라고 하는 현상을 겪게 된다. 이것은 병원에서 신경이 예민해진 결과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했다가 병원을 나오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현상이다. 그런 상황이 의심이 된다면 공신력이 있는 자동혈압계로 집에서 혈압을 일주일 정도 측정하여 담당의사에게 제시하면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자동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할 때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온 후 식탁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재는 것이 좋고 연속 2회를 측정하여 평균수치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혈압계의 높이는 자신의 심장 높이에 맞추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혈압을 매일 연속 측정해야 하며 모든 혈압을 다 기록해야 한다. 높은 혈압은 맘에 안 든다고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요즘에 누구나 혈압이 높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요즘의 삶은 누구나 스트레스가 많다.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일으키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가 된다. 그런 이유로 더더욱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혈압을 측정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자

료에 따르면 심장발작 환자의 69%가 병원에 올 때 고혈압이 있었고 뇌졸중 환자는 77%, 심부전 환자는 74%가 고혈압 상태였다고 한다.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은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예방책이다.

나이가 들 때까지는 혈압이 높은지 체크해볼 필요가 없다. ●○○ 혈압은 어렸을 때 측정해 볼수록 좋다. 심지어는 6세에도 고혈압이 진단되기도 한다. 아이들이 10세가 되면 꼭 혈압을 측정해보는 것이 좋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도 혈압과 체중이 높으면 30세쯤에 이미 동맥이 두터워지는 결과를 보인다.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때부터 비만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나이와 키, 성적 성숙 정도에 따라 혈압이 결정되므로 비만할수록, 성적으로 성숙할수록 혈압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소아나 청소년의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에 방문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자동으로 혈압도 올라간다? ●○○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자동으로 혈압도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생활습관의 특성상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만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혈압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습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 운동부족, 과도한 음주와 같은 습관은 흔히 한 사람이 모두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혈압은 남자들의 문제이다?

고혈압은 누구에게나 문제가 된다. 실제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고혈압의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만일 경구용피임약을 복용 중이거나, 비만하거나,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거나,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다면 고혈압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



고혈압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30%가 갖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무려 절반이 고혈압을 갖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Special Theme

심혈관질환 2.

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심장내과

이재웅 교수

사진. 김선재



혈관, 잘 通해야 할텐데

심근경색 알아보기

급성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심장동맥혈관'이 갑자기 혈전이나 혈관경련에 의해 완전히 막히면서 심장근육의 괴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마치 뇌졸중이 뇌의 동맥혈관이 급성으로 막히면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 심근이 급격하게 손상되면 심장 고유의 혈액 펌프 기능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뇌를 포함한 신체의 중요 장기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심부전이나 사망을 유발한다. 특히 심장동맥의 근위 부위가 막히거나 부정맥, 다발적 심장동맥질환의 경우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 어느 날 갑자기 찾아 온 흉통

앞가슴에 참기 힘든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여 30분 이상 지속되는 것이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이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혈액 순환이 감소되면서 호흡곤란, 식은땀, 오심, 구토, 의식소실 등의 증상이 동반한다. 간혹 환자에 따라서는 가슴 통증이 위에서처럼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앞가슴이 아닌 명치나 상복부의 통증, 불편감, 소화불량감 또는 전신쇠약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 당뇨가 있는 환자

나 고령의 환자에서는 통증이 없을 수도 있어 전형적인 흉통이 아닌 경우에는 진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흉통의 강도는 심장에 분포하는 신경 감각이 얼마나 예민한가에 달려있을 뿐 급성심근경색의 중증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체 말고 바로 응급실을 찾도록 해야 한다. 간혹 흉통을 느끼면 진통제나 소화제를 먹고 나서 기다려보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병원에 오는 환자들도 있다. 이는 심장





급성
심근경색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동맥
경화증의
예방이다.
동맥경화의
위험 인자는
흡연, 당뇨병,
고혈압 및
고지혈증
이다.

손상이 더욱 심해져서 살아 있는 세포가 얼마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야 한다. 심근경색증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초기보다 통증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심장 근육이 더욱 광범위하게 괴사하기 때문이다.

● 빠른 진단과 처방이 관건

막힌 혈관의 위치, 수, 병원에 도착한 시간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심혈관중재술, 혈전용해제의 약물 치료, 응급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 심혈관중재술이란 심장혈관의 막힌 부위를 직접 가느다란 유도 철선을 통과한 후에 풍선 확장을 하고 스텐트라는 그물망을 삽입하는 시술로서, 폐색된 부위를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뚫어 주기 때문에 현재 주된 치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시술이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즉 심근에 산소공급이 차단이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심장의 근육이 손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혈류의 재개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병원 도착 후 풍선확장술까지 90분 이내로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혈전용해제의 투여는 심혈관중재술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시행해온 급성심근경색의 치료방법으로서 심혈관중재술을 시행할 수 없는 병원이거나 이송 시간이 늦어질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30분 내로 주사를 시작해야 한다.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뇌출혈이나 위장출혈 등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심부전, 출혈, 부정맥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소 1일에서 3일 이상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

●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은 필수

급성심근경색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동맥경화증의 예방이다. 동맥경화의 위험 인자는 흡연, 당뇨병,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다. 또한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가족력, 대사증후군(비

만), 경쟁적 성격(A형 성격), 정신적 스트레스 등도 위험 인자에 속한다. 흡연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젊을수록 급성심근경색의 유발인자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크게 된다. 최근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환자에서도 발병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에서 흡연이 중요한 위험 인자이다.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타 질환보다도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철저한 혈당, 혈압 조절이 필요하다. 1주일에 3회 이상의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과 저콜레스테롤 식사 요법도 매우 중요한 예방법이 된다.

급성심근경색을 앓고 나면 재발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담배를 절대적으로 끊어야 하고, 혈압과 당뇨 및 고지혈증을 철저히 조절해야 한다. 짠 음식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음식의 간은 매우 심심하게 해야 한다. 포화지방산이 많이 든 육류나 튀긴 음식 대신 콩과 생선을 섭취해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은 경우에는 그물망이 혈관내피세포로 완전하게 덮여 질 때까지는 혈전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아스피린 등의 항혈소판제제를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㉔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 이것만은 지키자!

홍통이 발생하면 119에 전화해서 바로 응급실을 찾는다

진단에서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중요하므로 새벽에 증상이 있다고 해서 꼭 참고 기다리고 버티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오거나 외래 진료까지 기다리지 말 것!

혼자 있을 때 홍통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본인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 심근경색증 발병 후 초기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부정맥인데, 혼자 있다가 발생하면 심폐소생술의 가능성을 놓쳐 영영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

운전 중에 홍통이 발생하면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몰고 응급실까지 오지 말고 차를 길가에 정차시키고 119로 전화한 후에 기다려야 한다.

뇌출혈, 위장관 출혈 등과 같은 과거 병력을 의료진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

혈전용해제는 물론이고 심혈관중재술의 경우에도 헤파린, 항혈소판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Special Theme

심혈관질환 3.

—

글. 한양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김 혁 교수

사진. 김선재

예방법이 없어 더욱 위험한

심장판막질환의 외과적 치료

심장에는 2개의 방과 2개의 실이 있는데 피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해주기 위해 판막이 존재한다. 즉 심장에는 4개의 판막이 존재하게 되며 판막이 열렸을 때 피가 통과하며 닫혔을 때는 피가 거꾸로 못 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판막이 좁아지게 되면 협착증이라 하고 잘 닫히지 않고 거꾸로 새게 되면 폐쇄부전증이라고 진단된다.





판막의
수술적
치료
성적이
향상되어
매우
적은
사망률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 퇴행성 변화가 중요 원인

심장판막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과거에는 류마티스열이 가장 많았지만 근래에 와서는 개인위생의 향상 및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퇴행성 변화가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선천성, 세균감염, 외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심장판막질환의 가장 많은 증상은 운동 시에 호흡 곤란이다. 이러한 증상은 서서히 진행됨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잘 느끼지 못하게 되어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도 본인들은 별로 호흡에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수술치료 후에 깊은 호흡이 가능하다는 등 숨쉬기가 편해졌다고들 말한다.

흉통도 느낄 수 있는데 협심증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병이 진행됨에 따라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이 발생하여 가슴이 두근거리게 된다. 또한, 일시적인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하기도 하는데 혈전 형성에 따른 뇌경색의 발생으로 반신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심장소리만 들어도 진단 가능

증상들을 잘 들어보고 청진기를 이용하여 심음을 청진하면 일단 대부분에서 진단이 가능하다. 흉부 방사선 촬영, 심전도 등이 도움이 되며 확진을 위해서는 심초음파가 가장 정확하다. 심초음파를 시행함으로써 판막질환의 심한 정도를 파악하여 내과적 치료 및 외과적 치료의 결정을 하게 된다.

심장 잡음만 들리고 증상이 없는 초기에는 약물치료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관찰하면 된다. 진행이 되고 점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일단 강심제 및 이뇨제 등의 약물치료를 하면 대부분 증상이 좋아진다.

이러한 내과적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너무 늦은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경우 심장기능이 많이 떨어져 수술의 위험도도 증가하며 수술 후에도 생존율이 저하됨으로 수술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외과적 치료는 풍선판막 성형술, 판막 성형술, 판막 치환술이 있다. 풍선판막 성형술은 대퇴부의 정맥을 통해 풍선을 심장에 위치시킨 후 판막을 넓혀주는 방법이다.

판막성형술 및 판막 치환술은 가슴부위를 절개한 후 환자 판막 상태에 따라 자신의 판막을 성형하거나 심하게 망가진 경우에는 인공판막으로 갈아주는 방법이다.

최근 10년간 본원에서 시행된 판막 성형술 및 치환술은 총 236례가 시행되었으며 80세 미만에서는 수술 사망률이 없었고 80세 이상의 고령을 포함해서 수술 사망률은 1% 이하로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 청결한 생활습관이 중요

퇴행성 심장판막 질환의 예방법은 불행히도 없다. 판막질환이 있는 경우 고혈압의 동반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질환의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혈압은 꼭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또한 심내막염은 치사율이 높은 판막질환이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구강 내 청결이 매우 중요하여 잇몸질환 및 치아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치과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외출 후 집에 와서는 곧바로 손을 씻는 것도 좋은 생활 습관이다. 이러한 개인 위생이 류마티스열도 예방할 수 있다.

현재 판막의 수술적 치료 성적이 향상되어 매우 적은 사망률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수술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시행할수록 생존율이 향상되고 수술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

진료과 들여다보기

보다 앞선 의료로 사랑을 실천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진료과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글/하나영 사진/안호성

정확한 진단, 친절, 신속으로 영상 의학 발전을 꽃피우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영상의학과



1995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개원과 동시에 신설된 영상의학과는 현재 최첨단 장비의 도입과 끊임없는 연구로 병원의 주축 과로 자리 잡았다. 비교적 크지 않은 규모 속에서도 이처럼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고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영상의학과 가족들을 만나 보았다.

모든 진료의 기본은 영상의학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지하 1층 듀얼 CT실 (이하 DSCT · Dual Source Computed Tomography) 내부로 하나 둘 들어오는 영상의학과 가족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약 50여 명으로 이루어진 대가족이다 보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모이기 힘든 터! 결국 점심시간을 활용해 12시가 되어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모이고 보니 20여 명 남짓, 진료과 탐방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들이 모였다. 단체 사진 찍기에 벅찬 인원들이었지만 화기에애한 과 분위기를 말해주듯 웃음꽃 속에서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영상의학과 가족들의 구성원은 교수 8명(박충기, 박동우, 김용수, 허정남, 유정아, 정우경, 김민영, 김수연)에 전공의 4명, 방사선사 32명, 간호사 2명 등 약 50여 명 이상이다. 최정곤 CT실 팀장은 “모든 진료의 기본은 영상의학과에서 시작됩니다”며 “인력이나 수입 등 여러 면에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주축 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고 영상의학과를 소개했다. 사실 영상의학과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등을 관독하는 곳으로, 최근 암환자나 건강검진 증가로 조기 검진이 중요해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각 병원마다 수요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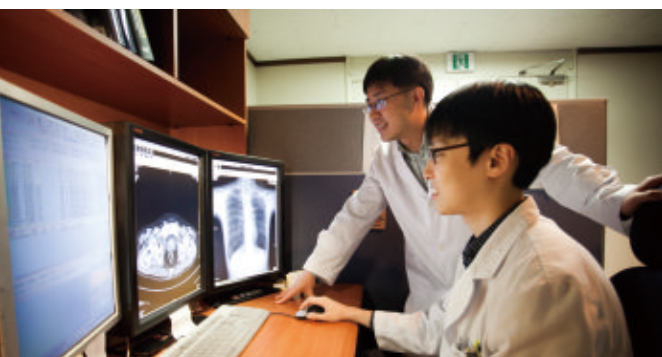
최첨단 기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료

“비교적 크지 않은 규모 속에서 업무의 신속·정확성에 매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지는 않지만 최첨단 기계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 이야기가 나오자 과장 김용수 교수의 입에서도 어느새 불꽃처럼 말이 쏟아져 나왔다.

“2년 전, 첨단 CT장비인 듀얼 CT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CT 장비는 관상동맥질환의 주원인이 되는 세 개의 관상동맥을 촬영할 때, 환자에게 약을 투여한 후 심박동을 느리게 해서 촬영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두 개의 튜브를 동시에 회전함으로써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도 훌륭한 심장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부담을 크게 줄였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가능합니다.”

손수 리플렛까지 보여주며 설명하는 김 교수의 얼굴은 다소 상기되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장비는 큰 병원에서도 보유하기 힘들 정도로 최첨단 장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영상의학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용수, 박동우, 정우경 등 우수 교수들이 독창적 연구업적을 국제학회에서 인정받아 ‘후즈 후 인더월드’에 등재되는 등 국제영상학회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김 교수는 쑥스러워하며 그런 상들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정확한 진단’ ‘친절’ ‘신속’을 세 가지 목표로 삼으며 지금처럼 묵묵히 환자들을 위해 진료하고, 영상의학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를 선두로 젊은 패기의 영상의학과 가족들이 이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영상의학과는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영상의학과는 이미 1년 전에 혈관촬영기를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초음파 기계를 도입했다. 이 기계는 실시간 초음파 영상과 더불어 조직탄성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다. 특히 올해 12월에는 MR 3T까지 도입해 최첨단 영상의학과로 한 발자국 더 거듭날 예정이다.

100세까지 88하게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전문의들이 알려드리는 '올바른 건강 지침'입니다.

글/박창주 한양대학교병원 치과 교수

사진/김선재

‘2080 운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치아를 상실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충치와 흔히 ‘풍치’로 많이 알고 계시는 치주염이 있겠습니다. 단일치아에 생기는 충치와 달리 치주염은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골의 병으로 다수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주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 치주염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어 증상이 심해진 뒤에는 결국 병든 치아를 발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즉 20개의 치아를 80대까지 유지하는 일은 치아와 잇몸이 튼튼한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그야말로 일생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가 되는 셈입니다.

‘2080 운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20개의 치아를 80대까지 유지하자는 운동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영구치는 총 32개입니다.

사랑니 4개를 제외하여도 최소 28개의 치아가 구강 내에 존재하는 셈이니 언뜻 20개의 치아를 노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매일 하



루 세 번이 기본이 되는 '치솔질'이야말로 구강 건강 '장기 프로젝트'의 첫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인 셈입니다.

올바른 치솔질 방법은?

치솔질은 많은 횟수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과 오른쪽, 윗니와 아랫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순서 없이 이를 닦습니다. 이렇게 치솔질을 하면 빠뜨리는 부위가 생기기 마련으로 입 안의 모든 치아를 깨끗이 닦으려면 순서를 정해놓고 이를 닦는 것이 좋습니다. 치솔질을 할 부위는 구강 안을 상하 좌우를 구분한 뒤 이들 각각의 안쪽 바깥쪽 총 8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치솔의 경우 총 3분의 치솔질 시간을 8부분으로 나눠 각 부위 당 같은 시간을 할애하여 닦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 치솔의 경우 총 2분간 치솔질을 하면 되므로 각 부분 당 15초씩의 시간을 들이면 됩니다.

전동치솔 알고 사용합시다!!

노인, 어린이처럼 손목에 힘이 없고 치솔질을 할 만큼 손재주가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 적은 힘으로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전동치솔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전동치솔 사용 시에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먼저 전동치솔을 일반치솔처럼 3·3·3(하루 3번, 식사 후 3분 이내, 3분간 양치) 요법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동치솔을 자주 오랜 시간 사용하면 치아 표면이 닳을 수 있으므로 2·3·2(하루 2번, 3분 이내, 2분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동치솔을 사용하고 점심에는 일반 치솔을 사용해 주면 치아 및 잇몸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혹 전동치솔 사용자 중 일반치솔 사용 시 상쾌함이 덜한 경우 일반치솔질 후 구강청정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솔모 교체는 일반치솔모와 마찬가지로 2~3개월마다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주질환자나 당뇨병환자는 전동치솔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염증으로 인해 잇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로 양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동치솔을 사용할 경우, 잇몸에 상처를 입히는 등 잇몸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과전문의와 상담 후 전동치솔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동치솔을 사용하더라도 치아 사이 음식물찌꺼기 제거를

위해서는 하루에 한번 워터픽(치아사이 낀 음식물 제거에 사용되는 물 분사 세정기)이나 치실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치솔 선택은?

올바른 치솔질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치솔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치솔은 크게 털부분과 목 부분 및 칫솔을 손으로 감싸 쥘 수 있는 손잡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기는 털의 단면이 수평이고, 털의 탄력도가 중등도이며 손잡이가 직선형이거나 약간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형태가 좋습니다. 칫솔의 머리 부분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어금니 치아를 2개 내지 3개 정도 덮을 수 있는 크기가 적합합니다.

즉, 솔이 지나치게 뾰뚱하지 않고 칫솔 넓이가 자신의 치아크기에 적당하며 칫솔모의 길이가 적당해 구강 내 어디든지 닿을 수 있는 칫솔이면 좋겠습니다.

처마 밑 돌이 오랜 시간 떨어지는 물방울에 패이듯 일생 동안 시행하는 치솔질 습관이 좋지 않다면 치아는 건강은 커녕 그 형태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습관만 잘 유지할 수 있다면 평생을 걸쳐 훌륭한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20개가 아니라 더 많은 수의 치아를 80세가 아닌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겠지요? 우리 모두가 '2080'이 될 어려운 일이라며 자신 있게 미소 짓는 그날을 꿈꿔봅시다. 

이제부터라도 바른 치솔질 시작하세요!

- ① 치솔을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곳에 45도 정도의 각도로 경사지게 위치시킵니다. ② 잇몸에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다 치아와 치아의 경계 부위를 손목으로 돌려 회전시키면서 닦습니다. ③ 앞니 속을 닦을 때는 칫솔모를 세워서 앞으로 닦습니다. ④ 어금니 안쪽은 칫솔을 잇몸과 치아의 경계 부위에 대고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며 닦습니다. ⑤ 어금니의 씹는 면은 앞뒤로 닦습니다. ⑥ 아래, 위 치아의 모든 면을 다 닦은 후 혀와 구강 점막 부위도 닦아줍니다. 이때 혀 세정기가 부착된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⑦ 칫솔이 잘 닿지 않는 치아와 치아사이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이용하여 치태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베스트 파트너

안에서 배운 '사랑의 실천'을 세월이 지나 밖에서도 실천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한양가족'을 소개합니다.

글/김민혜

사진/안호성

검사실은 물론 작은 인테리어 하나까지도 환자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한 김윤호내과의원. 그 중심에는 환자를 향해 끝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김윤호 원장이 있다. 늘 환자 가까이에서 최상의 진료를 펼치고 있는 그의 특별한 진료철학을 들어보았다.

환자와 모교를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윤호내과의원 김윤호 원장



검사실부터 인테리어까지,

환자중심의 진료실

서울 도심 한 가운데에 위치한 김윤호내과 의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이 귓가를 촉촉이 적힌다. 병원 특유의 딱딱한 분위기 대신 웬지 모를 여유로움과 편안한 분위기가 온 몸을 감싼다.

김윤호내과의원은 병원 내부를 환자 중심으로 설계하여 검사의 효율성을 한층 높였다. 초음파실, 심전도실, 내시경실, X-ray실 등 각종 검사실을 한 곳에 모아 검사 시간을 단축시키고 환자의 동선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소변검사실과 화장실을 연결하여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물론 편안한 분위기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다.

병원 내부의 리모델링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은은한 조명과 안락한 느낌의 대기실은 병원이라기보다 카페를 연상시킨다. 이처럼 병원 곳곳에 담긴 김윤호 원장의 환자 사랑은 진료실 현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치료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조금만 생각하면 나옵니다. 의외로 간단하지요. 작은 것 하나도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환자분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다보면, 어느새 환자도 의료진에게 마음을 열고 치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니까요. 내과의 특성상 당뇨나 고혈압으로 찾아오시는 노인 분들이 많은데, 내 부모라는 생각으로 정성껏 진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모교사랑, 끝없는 환자사랑

김윤호 원장의 진료실로 들어서자,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첼로가 눈에 들어온다. 흰 가운과 첼로의 조합이라! 잠시 고개가 갸웃

거리던 순간, 그가 첼로 연주를 선보였다. 현란한 손놀림과 얼굴 가득 드러나는 풍부한 감정표현이 꽤 오랜 시간 첼로와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첼로를 배우기 시작한 김윤호 원장은 그의 인생에서 첼로는 악기 그 이상의 뜻 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다.

“2년여 전,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들이 한데 모여 ‘사랑나눔 의료인 음악회’를 개최했지요. 병원생활에 지친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치료하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연주하던 첼로를 좋은 일에 사용하게 되어서 기쁩습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김윤호 원장은 한양대학교병원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두 팔 걷어 나설 만큼 모교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 그의 이러한 모교사랑은 ‘환자중심의 진료’라는 진료철학과 맞물려 한양대학교병원과의 협진에서도 나타난다.

“주로 검사결과 갑상샘암이나 위암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한양대학교병원으로 협진을 보냅니다. 한 달에 협진 보내는 환자 수만 해도 10~15명 정도 되지요. 내과의 특성상 다양한 과들과 협진이 요구되는데, 단순히 한양대학교병원으로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각 진료과별 의료진까지 추천해드리지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동문들에 대한 믿음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믿고 찾아온 환자분들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환자와 모교를 향한 마음이 그 누구보다 뜨거운 김윤호 원장. 앞으로 두 병원이 더 좋은 협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 활동과 더불어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

best partner



김윤호
원장은
그의
인생에서
첼로는
악기
그
이상의
뜻 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다.

내 인생의 커다란 나무

방사선종양학과에서 근무하며



한가위 보름달이 기울면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온이 느껴집니다.

저는 한양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근무해온 지 20여 년이 되어갑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아래 대가족 속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자라났습니다.

대가족의 막내로 태어난 덕분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조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며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의 고향인 강동구 둔촌동은 그 당시에는 평범한 농촌마을이었습니다. 천호동 약수터라고 불리는 유명한 약수가 나오는 곳이었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단골로 김밥에 사이다를 넣은 가방을 메고 소풍을 가던 아련한 추억이 배어 있는 곳입니다. 고교야구로 이름을 날리던 동대문상고에 진학하여 화이트칼라의 로망이었던 은행원이나 대기업에 입사하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내 소모임 MRA라는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양로원과 어린이시설 방문 등의 활동을 하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활동이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척이나 저를 아껴주시던 할머니께서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던 중, 방사선치료를 받게 되면서 처음으로 치료방사선과를 접하게 되었고, 방사선으로 영상만 찍는 것이 아닌, 직접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신기함에, 고교 졸업 후 방사선사의 꿈을 키우며 방사선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실습과정으로 한양대학교병원에 발을 딛게 된 인연으로 방사선종양학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 종양학과는 주로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으로 환자분들의 심신이 매우 지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수술과 항암치료 후에 방사선치료를 받기 위해 방사선종양학과를 접하게 됩니다. 항상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환자분들의 아프신 몸과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저의 투박한 손이지만 격려의 마음으로 치친 손 한 번 더 잡아



드리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해 드리겠다는 자세로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때론 제가 맡은 일에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결혼하여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제 아이들 또래의 어린 환아를 치료하거나, 임산부의 몸으로 태아를 위해 모든 치료를 거부하시다 출산 후에 치료받기 위해 오신 환자분을 볼 때면 애잔한 모성애에 고개가 숙여지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투병으로 반복되는 항암치료와 전이, 재발의 고통에 지쳐서 피로워하는 환자분을 치료할 때면 저의 마음도 무겁고, 무엇을 도와드릴야할지 막막할 때, 직업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아가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과를 찾아오거나, 치료시작 시에는 통증으로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오시던 분이 치료 후에 두발로 걸어오시어 정성으로 준비한 음료수를 건네주실 때는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치료를 하시면서 병을 이기시겠다고 의지와 용기를 스스로 북돋으시는 환자분을 볼 때나, 암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으로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힘든 환자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으시는 분들을 볼 때면 아직도 제가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때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저를 알아봐주시고, 치료받을 때 너무 고맙다며 인사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 많은 힘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은 방사선치료 기술도 많이 발전하여 예전보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사선종양학 분야는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상 세포조직에는 최소한의 방사선을 주고 종양세포에는 가능한 많은 양의 방사선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방법을 도입하여 완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방사선종양학과는 동료들과 함께 환자분들을 편안하게 치료해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사선사의 길을 선택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암환자의 치료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자 하며, 언제나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환자분들을 맞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r. 오페라를 말하다

글/오재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불꽃같은 사랑

빈센초 벨리니 <노르마>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인 벨리니는 어느 자리에서 “모든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노르마>만은 살리고 싶다.”라고 실토한 적이 있다. 그는 수많은 오페라 중에서도 이 오페라에 대해 애착과 자신감을 가졌다. <노르마>는 그의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이탈리아 오페라의 최대 걸작이다.



◎ 빈센초 벨리니(1801~1835)

짧지만 화려한 작품 활동

1801년 나폴리의 오르간 주자의 아들로 태어난 벨리니는 어릴 때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 일찍이 나폴리 왕립음악원 재학시절 그의 첫 오페라 <아델스와 살비나>로 세상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이후 나폴리 산 카를로극장의 감독이자 라 스칼라극장의 단장인 도메니코 바르비아를 만난다음 제작된 두 번째 오페라에서 숨은 재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이를 계기로 그는 바르비아의 소개를 받아 오페라의 전당인 밀라노의 라 스칼라극장에 진출하게 된다. 그곳에서 당대 명성을 날리던 대본작가 펠리체 로마니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또 다른 기회가 온다. 벨리니보다 13살이나 많았던 로마니는 그의 동료라기보다는 인생의 스승으로서 그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였다. 6년간 두 사람은 <몽유병의 여인>, <해적> 등 6편의 오페라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독보적인 오페라가 바로 <노르마>이다. 1831년 라 스칼라극장에서 초연된 <노르마>는 부드럽고 서정적인 기교, 풍만하고 호소력 있는 멜로디, 능숙하고 섬세한 배정화법, 강한 성격묘사 등 벨리니의 수려한 자질들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로마니의 우아하고 유려한 대본이 오랫동안 오페라의 성공에 한 몫을 하게된다. 당시 한 시즌동안 서른 아홉 번이나 무대에 오를 만큼 이 오페라는 대성공을 거둔다.

30세의 벨리니는 화려한 경력으로 인생의 순풍을 만난 듯하였다. 하지만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청교도>, <텐다의 베아트릭체> 등 2

VINCENZO BELLINI <NORMA>

개의 오페라 만을 추가하고 33세의 나이에 생을 마친다.

노르마의 사랑 · 분노 · 희생

오페라 <노르마>의 줄거리를 보면 제1막 제1장 배경은 기원전 50년경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갈리아 지방. 갈리아에 파견된 로마 총독 폴리오네와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그의 두 아이를 낳은 갈리아의 드루이드인의 여사제장 노르마는 로마와 전쟁을 원하는 그녀의 아버지 오르베소와 드루이드인들을 설득하면서 유명한 아리아 ‘정결한 여신(Casta Diva)’을 부른다. 제2장 노르마는 폴리오네가 젊은 신출내기 여사제 아달지사와 사랑에 빠져 그녀를 데리고 로마로 귀환할 계획을 알게 되어 분노하면서 자신이 폴리오네의 여자라는 것을 밝힌다. 제2막 제1장 어느 날 밤, 노르마는 폴리오네를 맹렬히 비난한 뒤 어린 자식들까지 죽이려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아달지사를 불러 아이들을 데리고 폴리오네와 함께 로마로 가고 한다. 그러나 노르마와 폴리오네의 비밀관계를 모르고 사랑에 빠졌던 아달지사는 노르마를 위로하며 폴리오네가 그녀에게 돌아가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한다. 두 여성은 감동적인 이중창 ‘아이들을 보세요, 노르마!’를 노래한다. 폴리오네는 아달지사의 간곡한 설득을 거절한다. 비정한 폴리오네에게 분노한 노르마는 군사를 일으켜 로마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제2장 숲속에서 오르베소가 사람들에게 폴리오네가 떠

나고 새로운 총독이 올 것이라고 연설을 하고 있다. 제3장 로마로 가기 전에 아달지사를 데려가려고 신전에 잠입한 폴리오네가 드루이드인들에게 붙잡혀 끌려나오자 노르마는 백성들에게 “정결서약을 어긴 여사제를 고발한다. 그녀는 바로 나다.”라며 고백하게 되고 그녀의 아이들을 오르베소에게 맡긴 후 스스로 화형대에 오른다. 노르마의 고귀한 희생에 감동한 폴리오네는 노르마가 오르는 화형대에 자발적으로 함께 올라가면서 이중창 ‘당신을 버린 내가 어떤 영혼을 지닌 사람인지’를 부르고 막이 내린다.

청중을 쥐고 흔드는 힘

오페라 <노르마>만큼 주역 가수와 청중 모두에게 호감과 두려움을 자아내는 작품은 많지 않다. 기술적으로나 해석상으로 최고의 노력을 요구하는 이 오페라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등장인물들의 숭고한 희생으로서 인간적인 오류를 범했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주인공 그리고 그 고귀함에 감동을 받아 죽음을 택하는 남자 주인공을 긍정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통속적인 삼각관계에 초점을 맞춰 불륜적인 연작간의 갈등과 대결구도가 벨리니의 수려한 음악에 어울려 승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중을 ‘울고, 떨고, 죽게’ 만드는 이런 충동은 사랑과 유혹, 배반과 실연을 주제로 한 심오한 인간 드라마에 대한 실마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벨리니의 무한한 칸틸레나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은 동시대 작곡가 슈베르트의 ‘천국의 길’을 연상케 하며, 우리를 사랑과 증오, 희망과 절망의 감정으로 인도한다. ㉠

노르마의 감동이 살아있는 음반



㉠ **틀리오 세라핀(지휘), 마리아 칼라스(노르마), 프랑코 코렐리(폴리오네), 크리스타 루드비히(아달지사), 라 스키타라극장(EMI, 1960);**



㉡ **리처드 보닝(지휘), 조안 서덜랜드(노르마), 루치아노 파바로티(폴리오네), 몽세라 카바예(아달지사), 웰시 국립 오페라(Decca, 1984);**



㉢ **프리드리히 헤이다(지휘), 에디타 그루베로바(노르마), 조란 토도로비치(폴리오네), 소냐 가나시(아달지사), 바이에른 슈타트 오페라(DG, 2006, DVD)**

movie



Dr. Movie

글/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나를 죽이고 전체를 살리는 하모니의 힘, 감성의 승리

예능과 다큐의 경계에서 재미와 감동 모두를 잡는데 성공했던 남자의 자격 합창단이 수많은 화제를 남기고 두 달의 여정을 끝마쳤다. 너무도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촉박한 시간을 쪼개면서 불안감을 뒤로 한 채 캡틴의 한 마디에 몸을 맡기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생성해내는 전 과정은 자신을 없애면서 전체를 만드는 융합작용이 얼마나 강력하고 매력적인지 보여 주었다. 할머니 합창단을 관람할 때, 합창이 끝난 직후, 그리고 리더를 보낼 때 터진 눈물은 뭐라 정의하기 힘든 관념의 구현이지만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이 기묘한 감정은 진정 건강한 호모 루덴스를 존재하게 하는 힘일 것이다.

강마에의 베토벤 바이러스가 오케스트라의 소녀(1937)에 대한 오마주일지 아니면 단순한 이미지의 차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의 낙오자들을 목표의식 아래에 하나로 뭉치게 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점에서는 분명 동일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경제대공황으로 해체된 관현악단의 가난한 트럼본 주자의 극성맞은 딸 디아나 더빈이 지휘자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를 설득, 감동시켜 악단을 지휘하게 하고 결국 재건시키는 영화이다. 남루한 단원들이 스토코프스키 저택의 로비에 모여들고 어린 딸



**SISTER
ACT 2:**

STORY

디아나의 지휘로 헝가리 광시곡 2번이 연주되는 중간, 자신을 속여 신문에 허위광고를 했다고 화가 난 그가 차츰 허리춤부터 두 손을 움직이더니 중국에는 포디움에 올라가 악단을 지휘하게 된다. 실명으로 출연한 그는 디즈니의 판타지아에서도 실루엣으로 출연하여 20세기 전반 가장 인기 있는 지휘자가 되었다.

경찰의 목격자 보호 프로그램 일환으로 수녀원으로 피신 온 우피 골드버그가 주변의 수녀와 신부님들을 감염시켜 노래로 삶의 활력을 찾게 한 시스터액트(1992)와 말썽꾸러기 학생들을 노래로 교화시키는 시스터액트2(1993)는 식상하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인간드라마이다. 자신의 일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던 사람들,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속단했던 방관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한 유연한 리더의 존재야말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일 것이다. 심드렁한 사람들 앞에서 'Oh Happy Day'를 부르던 작은 학생 자말의 소름끼치는 가성, 노래를 반대하던 어머니 앞에서 'Joyful, joyful'을 선창하던 리타의 깊은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악기임을 증명해낸다.

부모가 버린 학생들이 모인 기숙사학교 선생님 마티유가 인내심을 가지고 합창단을 키워나가는 프랑스 영화 코러스(2004)는 노래이전에 참된 교육과 선생님 상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미성을 가진 소년 모항주가 마음을 여는 장면, 마티유 선생님이 쫓겨날 때 머리 위로 쏟아지던 수많은 종이비행기들과 창문위로 흔들던 작은 손들은 사람 사이의 진실한 관계 맺기의 해답을 제시한다. 마치 키팅 선생님이 줄곧 학생들에게 말해왔던 carpe diem(현재를 즐겨라)에 따라 권위를 상징하는 책상 위에 올라서면서 떠나는 스승을 배웅하던 죽은시인의 사회처럼.

기적의 오케스트라-엘 시스테마(2008)는 베네주엘라 빈민가의 기적을 솔직 담백하게 엮어 내려간 다큐멘터리이다. 부자의 치기이자 형이상학적 수사로만 형용되었던 관현악이, 아니 믿음, 리더, 집중과 희망으로 대변되는 감성의 파도가 개인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설파한다. 과거가 이성을 중시한 브레인스토밍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감성과 이야기로 꾸며나가는 하트스토밍의 시대가 될 것이리라. 🎵

베네주엘라
오케스트라



Zoom in Focus

앞서가는 의술을 펼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첨단의료장비와

의료기술을 소개해 드립니다.

도움말/김영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글·사진/이진용

‘양방향 방사선투시기 로봇시스템(영상유도수술로봇)’은 정밀한 데이터와 의료정보를 제공해 의사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한다. IT와 BT가 융합된 수술로봇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양방향 방사선 투시기로 수술 중에 수시로 촬영을 하여 환자의 심부에 삽입된 수술 기구의 위치를 파악하는 네트워크 기반을 가진 첨단 의료로봇 시스템이다.

세 계 최 초 ‘ 영 상 유 도 수 술 로 봇 ’ 개 발 한 한 양 대 학 교 병 원 김 영 수 교 수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한계를 뛰어넘는
로봇수술!



지금까지와 다른 의료용 로봇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김영수 교수팀은 미세침습수술을 보다 정밀하게 도와주는 양방향 방사선투시기로봇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국내특허등록을 마치고 국제특허출원 중임) 현재 임상적용을 위한 준비 중이다. 이 로봇시스템은 신경외과 척추 및 뇌 수술의 미세침습수술 분야에 이용될 수 있으며, 수술 전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정확한 시술을 돕는다. 따라서 이 로봇시스템은 기능적 측면에서 영상유도수술로봇이다.

지금까지 사용되던 제우스나 다빈치는 내시경을 이용한 원격수술로봇인데 주로봇과 종로봇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도의가 주로봇(master robot)에 앉아 컨트롤러를 조작하면 종로봇(slave robot)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형태다. 이러한 로봇은 복강이나 흉강 등 공간을 확보가 용이한 수술에 쓰인다. 하지만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뼈, 뇌, 근육 등의 수술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

‘영상유도수술로봇’은 미리 찍어 둔 CT, MRI 영상을 이용하여 수술 전 계획을 세운다. 영상과 양방향 방사선 투시기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일치시킨 후 로봇 팔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정확한 좌표점을 설정해 정밀한 수술을 돕는 로봇이다. 이는 공간 확보가 어렵고 정확한 시술이 필요한 척추수술, 신경외과 뇌수술,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의 수술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의사의 실력에 좌우되지 않는 수술 결과

김영수 교수는 “수술을 CAD, CAM system처럼 정량적으로 하고 싶었고 그런 수술을 돕는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개발된 것이 ‘영상유도수술로봇’에 뼈를 천공할 수 있는 드릴을 장착시킨 ‘척추경 나사못 시술로봇’이다.

이 같은 연구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의 연구 지원으로 김영수 교수의 총괄 아래 한양대 의대, 한양대 공대, 포항공대가 참여해 한양대학교 ‘차세대 지능형 수술시스템 개발센터(소장 김영수)’에서 지금까지 6년 동안 진행된 결과이다.

현재 ‘척추경 나사못 시술로봇’의 오차범위는 1.2mm 이내이다. 이 정밀도는 임상 적용시 인정되는 오차범위이다. 카테바를 사용한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모의 수술을 시행한 결과 기존 수술에 비해 약 1/3 정도의 시술 시간을 줄일 수 있었으며, 수술 전 계획과 시스템을 이용한 시술이 정확히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영상유도수술로봇시스템에 사용되는 로봇팔은 일반 공장에서 사용하는 로봇팔과는 아주 다른 목적을 가지므로 특별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는 로봇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김영수 교수팀은 각 임상 수술분야에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다목적 로봇팔을 개발 중이다. 특징적인 것은 우선 안전하고 정교하며 현재 의료영상을 이용한 수술계획시스템과 잘 연동되며, 다양한 센서를 부착한 첨단 로봇팔을 개발 중이며 향후 이를 정교한 뇌수술분야 로봇시스템에 이용하고자 한다.

또한 “숙련된 집도의가 시술하지 않아도 안전하며 국소마취만으로 효과적인 시술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확한 시술을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뇌수술이 가능한 뇌수술 보조로봇도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손으로 못하는, 눈으로 못보는 부위의 수술

대한의료로봇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영수 교수는 “(사)대한의료로봇학회를 창설하였으며 외국의 국제로봇학회와 긴밀한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의료 분야든 적용이 가능한, 안전하고 정밀하게 수술을 돕는 범용의 더 발전된 로봇 시스템이 개발 중이며, 원격 수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수술로봇은 미세침습, 최소절제수술을 가능하게 하여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흉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며 수술 후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특히 전신 마취를 할 수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국소마취를 통해 수술을 받는 등 수술의 방법이 크게 바뀌고 있다.

앞으로 개발될 수술로봇은 맨손의 한계를 뛰어 넘는, 손으로 하지 못하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부위의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로봇이 될 것이다. 우주공간에서 원격으로 조종하여 뇌 수술을 할 수 있는 로봇, 로봇 팔의 움직임을 집도의가 느낄 수 있는 로봇, 내시경을 대신하는 캡슐형 로봇 등이다.

다양한 수술 로봇들이 개발되어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양질의 의료기술 향상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2010년 하반기 정년 및 명예퇴임식



의료원은 지난 8월 26일 의과대학 계단강의동 4층 세미나실에서 '2010년 하반기 정년 및 명예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료원에

서 봉직하는 동안 쌓은 공로를 인정해 31명의 정년 및 명예퇴임자 모두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한양의대 동문 학술대회' 및 '한양의대인의 밤' 의료원 발전기금 8,000만원 전달



의료원과 한양의대 총동문회는 지난 10월 9일 한양대학교 HIT 6층 대회의실에서 '한양의대 동문 학술대회'와 '2010 한양의대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2010 한양의대인의 밤' 행사에서는 한양의대 7기 동기회에서 3,000만원, 12기 동기회에서 5,000만원을 의료원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이식환우를 위한 건강강좌' 개최



장기이식센터는 신장이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건강관리를 돕고자 지난 9월 7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이식환우를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총 다섯 개로 구성되어 외과 권오정 교수, 신장내과 강종명 교수, 비뇨기과 박해영 교수, 백희준 영양사,

성명순 사회복지사의 강좌가 진행됐다.

'난치성 신경계질환 세포치료센터' 개소



'난치성 신경계질환 세포 치료 임상연구센터'는 지난 9월 10일 본관 지하 1층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또한, 이날 의과대학 계단

강의동 4층 세미나실에서 개소 기념 심포지엄도 열렸다.

'난치성 신경계질환 세포치료 임상연구센터'는 지난 5월 말 보건복지가족부 '병원특성화 연구센터사업'에서 선정되어 향후 5년간 약 5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운영된다.

광릉 포레스트 CC 소아암 환우 돕기 기금 기탁



광릉 포레스트 컨트리 클럽(이하 광릉 CC) 회원들이 지난 10월 4일 광릉 CC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2010 광릉 가을축제'를 맞아 소아암 환

우를 위한 모금 행사를 통해 모은 2,000만원을 본원에 전달했다.

유방암 환우회,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완주



유방암 환우회 '핑크한양'과 외과 정민성 교수 등 교직원들이 지난 10월 10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2010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핑

크한양' 회원들은 유방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와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건강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5km 코스를 한 명도 빠짐 없이 완주했다.

● 캄보디아 소년 수술비 마련 바자회 열려



본원이 지난 9월 25일 구리역 광장에서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는 캄보디아 소년 뽀안(남, 10세)의 수술비 마련을 위한 자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

사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바자회와 모금활동 등이 진행됐고, 이날 모은 수익금은 뽀안의 수술비에 전액 쓰일 예정이다.

● 천사데이(1004Day) 개최



간호부는 지난 10월 4일 본관 1층에서 '천사데이(1004Day)'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간호사들이 환자 및 고객들에게 혈당 및 혈압 검사, 동영

상을 통한 스트레칭 교육과 함께 발바닥지 서비스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 ● ● '제11회 간의 날' 기념 건강강좌 및 무료검진



소화기내과는 지난 10월 5일 본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간질환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강좌 및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한양의대 김태엽 교수, 전대원 교수, 분당재생병원 김보현 교수 강의가 진행됐다. 강좌에 앞서 간단한 B형, C형 간염에 대한 무료검진과 강좌가 끝난 후에는 검사 결과와 함께 의료진의 상담이 진행됐다.

● '제2회 국제 심포지엄' 개최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이하 CRCRA)'는 지난 10월 1일 한양대학교 HIT 6층 대회의실에서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 및 최신 치료경향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학술적 교류를 위해 '제2회 CRCRA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배상철 센터장은 "제2회 CRCRA 국제 심포지엄은 지난 1회 국제 심포지엄에 이어 내실 있고 현실에 바탕을 둔 내용으로 준비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국내의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와 환자진료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 '2010 중랑구민 건강 한마당'서 족부 검사



관절재활의학과 박시복 교수가 지난 10월 7일 중랑구청에서 주관하는 '2010 중랑구민 건강한마당' 행사에서 서울시 중랑구 지역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로 무료 족부 관절 검사를 실시했다.

● ● ● 홍부외과 신성호 교수, 세계인명사전 등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홍부외과 신성호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사에서 발행하는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의 2011년도 판에 등재됐다.

“작은 나눔,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십시일반 발전기금 모금

대외협력실에서는 의료원과 의과대학 각 교실의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의 첫 사업으로 의료원 교직원과 의과대학 동문이 참여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 십시일반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십시일반 발전기금 모금방안

- 용 도** ① 의료원 발전기금 : 의료원의 시설 및 장비 투자 등에 사용
② 의과대학 교실발전기금 : 의과대학 각 교실의 연구, 교육, 학술 활동 등에 사용
③ 진료과 발전기금 : 진료과의 연구, 교육, 학술 활동 등에 사용
- 대 상**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및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동문
- 기부금액** 만원, 3만원, 5만원 단위의 소액기부
- 납입방법** 약정서 신청 후 급여공제 또는 자동이체
- 기부절차** 기부금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외홍보과로 제출
- 예 우** 기부증서 발행 / 감사카드 발송 / 기부자 명부 영구 보존 등
- 문 의** Tel : 02-2290-9276
Fax : 02-2296-3806
E-mail : hmcfund@hmc.hanyang.ac.kr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5,000만원 이상

이광수 교수 (의과대학, 前 외과교수, 외과학 교실발전기금)

1,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양병환 교수 (前 신경정신과 교수, 신경정신과학 교실발전기금)

최일용 교수 (정형외과 명예교수, 정형외과학 교실발전기금)

익명 (11기, 의과대학, 류마티스병원 발전기금)

1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오홍용 원장 (11기, 의대동문, 정형외과학 교실발전기금)

노창호 원장 (11기, 의대동문, 정형외과학 교실발전기금)

손정화 원장 (11기, 의대동문, 정형외과학 교실발전기금)

최충혁 교수 (13기, 정형외과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발전기금)

한양의대 7기 동기회 의료원발전기금 3,000만원

곽창훈 원장	원희선 원장
권성준 한양의대 교수	윤창겸 원장
김경현 한양의대 교수	이광현 한양의대 교수
김동일 원장	이민교 원장
김문성 원장	이민철 원장
김병제 원장	이 현 원장
김영석 원장	이현영 원장
김원용 원장	이호채 원장
박근석 원장	장동우 원장
박용천 한양의대 교수	장순섭 원장
박우형 원장	정원상 교수
신경학 원장	최웅환 교수
신동호 한양의대 교수(배우자 차경수)	현승룡 원장
심재철 한양의대 교수	
안희창 한양의대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2290 - 8114

● 응급실 : 2290 - 8282 ~ 4

● 전화예약 : 2290 - 9600 ~ 4

● 진료의뢰센터 : 2290 - 9717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이민호	화,수,목	목	간질환
	함준수	월,화,금	목	간질환, 담체장질환, 위장질환
	최호순	수,금,토(1주)	월	간질환, 담낭, 담도, 체장
	윤병철	월,목	수	식도, 위, 장
	이오영	월,수,토(4주)	목	식도, 위, 장
	전대원	월,목,토(2주)	수,금	간질환
	이항락	금,토(3주)	화,금	식도, 위, 장
	이강녕	화,토	월,목	식도, 위, 장
	주용원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권오완	목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권영일		화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손 원		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임헌길	목	월,수	부정맥, 인공심장박동기, 고혈압
	김정현	수,금	목	협심증, 심장판막증, 고혈압
	김경주	화,목	화,금	허혈성심장질환, 심혈관 중재술, 심장중기세포치료
	신진호	월,수,금,토(4주)	월	심부전, 심혈관 중재술
	임영효	토(1주)	수,목	일반 심장내과질환
	신정훈	토(2주)		일반 심장내과질환
	김석환	토(3주)		일반 심장내과질환
신장내과 2290-8300	강종영	월,화,수,금		사구체신염,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 혈액투석
	김근호	월,화,금,토(4주)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이창하	수,목,토(2주)	월,금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박준성	목,토(3주)	월,화,수	일반 신장내과질환
	황규식	월,토(1주)	화	일반 신장내과질환
내분비대사내과 2290-8300	김태하	월,화,수,목	목	당뇨병, 갑상선
	안유현	화,수,금,토(2주)	월,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최용환	월,화,금,토(1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김동선	수,목	월,화,목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홍상모	토	화,금	일반 내분비대사내과질환
호흡기내과 2290-8302	박성수	화,수,금,토	월,화	폐암, 폐결핵, 급성폐손상, 폐섬유증, 천식
	신동호	토	화,목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윤호주	월,목	수,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김상현	화	월,금	천식, 알레르기, 면역성폐질환
	곽현정	월,토(4주)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송성현	수,토(3주)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혈액종양내과 2290-8300	김인순	화,금,토(2주)	월	빈혈, 혈액암, 고형암, 골수이식
	이영열	월,수,토(4주)	화,목	혈액질환, 골수이식, 고형암
	박병배	목,토(1,3주)	수,금	고형암, 림프종, 혈액질환, 골수이식
감염내과 2290-8300	배현주	목	월,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 클리닉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이하백	월,수	목	소아호흡기질환, 소아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설인준	화,목	월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간질
	신재훈	수,목	화	소아내분비질환
	오성희	목,금	월,화	소아감염질환
	김남수	월,수	수	소아심장질환
	이영호	월(구리),금	화,목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제대혈클리닉
	김용주	화,금,토(2,4주)	수	소아소화기영양
	박현경	금	금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김신영	금	월, 수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백혜성	화,토(1주)	금	소아호흡기질환, 소아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육아지도실	고정희	월,목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금		육아상담, 예방접종
		화		미숙아질환, 육아상담, 예방접종
신경과 2290-8367/ 8368 (뇌간질클리닉)▲ 서관 4층	김주환	월,수	월,수	간질,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 증후군
	김승현	월	목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목	목(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김현영	월▲, 금▲, 토(3주)	월▲, 수▲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김희진	화▲, 금	화▲, 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백원기	월,목	월,목	손발저림, 어지럼증
	김영서	수▲, 목▲	수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박창윤	금	화, 금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정신과 2290-8419	남정현	월,목, 토(2주)	월,목	사회정신의학, 성폭력상담, 정신분열증, 치매
	안동현	수,토(4주)	월,수,목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파인행동증후군
	김석현	화,금,토(2주)	수,금	정신약리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오동훈	월,목,토(1,3주)	화,목	일반 정신과질환
	이선헌	금	금	소아정신의학
	최선경	화	목	소아정신의학
피부과 2290-8434	이창우	수, 토	월, 목	수포성질환, 두드러기, 홍반 및 알레르기질환, 피부암
	노영석	화, 금	화, 금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증, 무좀 및 전균성질환
	고주연	월, 목, 토	수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피부종양, 면역과부질환
	김영훈	월, 화, 금	금	피부외과, 탈모, 피부미용, 바이러스성 피부질환
외과 2290-8444	권성준	수, 금	수	위, 십이지장질환
	권오정	월	수	이식, 혈관질환
	이경근	화	목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이강홍	목	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정민성	목, 토(4주)	월, 목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하태경	수	금	복강경/로봇위암수술, 비만대사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안병규	토(2주)	월	일반 외과질환
소아외과	하태경	토(1,3주)	토(1,3주)	일반 외과질환
소아외과	홍부외과	강정호	월, 수, 금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수술, 탈장수술
	김영학	화, 목	화, 금	폐, 종격동 및 식도외과
정형외과 2290-8473	정원상	화, 목	목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김 혁		월, 수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김지현		금	선천성 심장질환, 심장판막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일반 흉부외과질환
정형외과 2290-8473	최일용	화, 목	화, 목	고관절클리닉
	김태승	토	월, 목	사지근골격계종양클리닉, 소아정형외과와
	이광현	월,수,금,토(2주)	수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견주관절학
	최충혁	월, 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 목	화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강창남	월	월,수	척추외과클리닉, 골다공증
	김이석	금	화, 금	고관절, 외상성,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이봉근	화,목,토(2주)	목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성,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황규태	금	금	정형외과학
신경외과 2290-8491	오석진	목	화	뇌종양, 척추질환(요추디스크, 경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수증)
	고 웅	수	월	뇌종양, 뇌혈관질환, 미세극소침습수술
	김영수	화	목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풍성질환, 뇌종양
	백광훈	월	금	디스크, 요통, 척추질환, 내시경디스크수술, 척수증양
	이형중	금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 두통
	전형준	금, 토	수	척추질환, 신경손상, 통풍성질환, 척수증양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수, 금	월	재건성형수술, 유방 · 수부재건
	김정태	월	수, 금	미세수술, 미용성형
	김창현	화	화, 목	미용성형, 악안면교정, 미세재건수술
	김연환	목, 토		일반 성형외과질환
산부인과 2290-8400	정성노	화, 목	목	선천성기형아, 유전클리닉, 일반 산부인과질환
	김경태	월, 금	화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난소종양, 용모성질환
	조삼현	수, 목	월	일반 산부인과, 자궁암, 유방암
	박문일	월, 목	목	일반 산부인과, 습관성유산, 고위험임신
	황정혜	수, 금	월, 수	일반 산부인과, 골반경수술, 폐경, 불임 및 생식내분비
	김영재	금, 토(1, 3주)	월, 수	일반 산부인과질환, 부인암, 골반경수술, 로봇수술
안과 2290-8570	호정규	화, 토(2, 4주)	화, 금	일반 산부인과질환
안과 2290-8570	고명규	금	월, 수	외안부(각막, 결막), 백내장, 안병리
	엄기방	월, 수	금	녹내장, 백내장
	이병로	화, 목	목	망막(당뇨), 유리체, 백내장
이비인후과 2290-8580	박철원	화, 금	화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김경래	월, 수	월,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태 경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양, 음성장애
	조석현			해외장기연수
	류리아	목	월, 화	갑상선종양, 음성장애, 코골이, 악안면외상, 일반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2290-8593	금효섭	월, 수, 토	수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신광수	화, 금	금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비뇨기과 2290-8593	이춘용	월, 토(2주)	화, 목	비뇨기종양,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신결석
	박해영	수, 금	월	신장이식 및 남성학, 신결석, 전립선질환, 비뇨기질환
	김용태	화, 목, 토(3주)	수	배뇨장애, 요실금, 전립선질환
	박성열	금, 토(4주)	월, 금	비뇨기종양, 복강경 및 로봇수술, 소아 비뇨기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031 - 560 - 2114

● 응급실 : 031 - 560 - 2050

● 전화예약 : 031 - 560 - 2086 ~ 8

● 진료의뢰센터 : 031 - 560 - 2082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김태곤	화,금(소아) 월,목	월(소아),수 화,금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이명자 전하정	월,화 수,목,금	화,목,금 월,수	방사선종양학 방사선종양학
해의학과 2290-9260	최운영 김지현		수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일반진료
치과 2290-8671	심광섭 이영수 황경균 박창주 임재중 김광수 한지영 서민석	월,화 목,금 화 수 수,목,금 토 월~금 화~금	수 월,화,수 월,화,목 화,수,금 월,화,목 토 수,목 월,목	턱알괴식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침습질환(타액선), 임플란트, 턱알골 성형(기형), 턱관절질환 턱알골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정법 심미교정, 설측교정, 금속교정, 수술교정 예방치과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일반 치과질환
가정의학과 2290-8738	박훈기 황현식	월,수,토(2,4주) 화,목,금,토(1,3주)	수,목 월,화	스포츠의학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산업의학과 2290-8996	송재철 이수진	화,수(2,4주),목 월,수(1,3,5주),금	화,수(2,4주),목 월,수(1,3,5주),금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근골격계질환, 작업중독

류마티스병원 동관1층 : 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배상철 전재범 김태환 원익신 성윤경 최찬범 김은미 박소연 김영삼 이지선 이주현	월,화,목,토(4주) 월,수,목 화,수,금,토(3주) 화,목 수,목,금,토(2주) 월,수,금 월,화,금 토 월,수,토 화 목 금	화,수 월,목 수,목 월,화,목 월,수 수,금 화,금 수 금 월 화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성인형스틸병, 근염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경피증, 통풍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베체트병, 혈관염 류마티스 및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류마티스 및 골관절염,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이규훈 이원재	수,금 월,목 화	월,수 화,목 금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관절재활
통증의학과 2290-9217	심재철	월,수,목,금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골 · 관절외과 2290-9217	이광현 최충혁 성일훈	월,수,토 월,수 화,목	월,수 화	손과 손목수술, 오십견, 팔꿈치관절 통증 슬관절클리닉 : 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족부클리닉, 당뇨병, 변형교정
조기관절염과 2290-9226	김신규		월,화,목,금	조기관절염, 류마티즘, 자가면역질환, 진단면역학

국제병원 서관3층 : 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2290-9551	김정현 황유선 박은서	월,화,목 월~금,토(1,3주) 월~금,토(1,3주)	월~금	협심증, 심장판막증, 고혈압 가정의학 한방과
국제 진료 여행자 클리닉	황유선 배현주	월~금,토(1,3주) 수	월~금	가정의학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 클리닉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소화기내과 031-560-2220	손준현 한동수 전용철 은창수 김태엽 배중호 현일식 박혜선 정재운 유연화	화 월,목 월,금 화,토 수,목 수 수 금 금 수	월,목 화 수 목 월,금 화 화 금 수 수	각종 간질환(간염,간경변증,간암) 대장질환(만성게양성 대장질환) 소화기, 위장관질환 소화기, 위장관질환, 체장, 담도질환 간질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031-560-2220	김순길 이재웅 최성일 박현철	월,화,금 수,목 토	목 화 월,수 수,금	임상심장학,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허혈성심질환, 중재적 임상 심장학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고혈압, 부정맥질환
신장내과 031-560-2220	김호중 한성웅 이주학	월,화,목 수,금 토	화,목 화,수 월,수	임상신장학, 만성콩팥병, 신장이식 혈뇨, 신장경, 고혈압, 만성콩팥병 임상신장학, 만성콩팥병, 고혈압
내분비내과 031-560-2220	박용수 이창범	월,목,금	화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해위장기연수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류마티스내과 031-560-2220	이혜순 방소영	월,수,목,토(3주) 화,금,토(1,2,4주)	화,목 월,수	일반 내분비내과질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통풍 류마티스관절염
호흡기내과 031-560-2220	손장원 김태형 김상현	화,목,금,토 수	월,화,목 수	호흡 중환자관리, 결핵 해위장기연수 천식, 알레르기, 면역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혈압
혈종내과 031-560-2220	최정혜	화,수,금	월	간염질환, 불명열, HIV, 해외여행자
감염내과 031-560-2220	김지은	월,목	화,수,목	간염질환, 불명열, HIV, 해외여행자
일반내과 031-560-2220	일 반	수,토	월,금	일반 내과질환
소아청소년과 031-560-2250	염명걸 김창렬 오재원 이세민 이영호 김주화 문진화	월 화,금 월,화,목 월,수,목,토(1주) 월 수,목,토(3주) 수,금,토(2주)	월,목 화,금 목 월,수 월,수,목 화,수,금	소아 심장질환, 소아간질 신생아학, 영아 신경발달 및 질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소아성장비만 소아혈액종양 일반 소아청소년과질환 일반 소아청소년과질환
신 경 과 031-560-2260	이영주 이규용 고성호 최호진	화,금 월,수 월,수,목 화,목,토	화,금 월,수 목 목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러움증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 신경퇴행성질환, 신경독성학 일반 신경과질환
신경정신과 031-560-2270	박용천 김대호 최준호 박선철	월,목 화,금 월,수,금 화,목,토	월,목 화,금 수,목 수,목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스트레스, 불안장애, 정신외상학 신경 일반 신경정신과질환
산부인과 031-560-2340	김승룡 이정한 김성희 호정규	월,목 화,수,금	월,목 금 수	내시경수술, 불임, 부인질환, 산과 해위장기연수 생식내분비, 고위험 산모, 내시경수술 일반산부인과질환
흉부외과 031-560-2300	이철범 전순호 신성호	월,목 화,수,금	월,수,목 화,금	폐, 종양 및 식도외과, 기흉 해위장기연수 심장혈관외과, 관상동맥, 대동맥, 심판막, 말초혈관질환
정형외과 031-560-2310	김영호 박태수 박예수 김중현 박기철 김소명	월,수,금 화,목 수,금 목 화 토	수 화,목 월 화,수 목,금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건관절, 주관절, 슬관절, 스포츠의학 관절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무릎관절클리닉(인공관절, 관절경수술)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무릎
신경외과 031-560-2320	김충현 김재민 정진환 양문술	월,금,토(2주) 수,목 월,토(3주) 화,수,토(4주)	수 월 화,목 금	뇌종양, 기능성뇌질환, 두부외상, 척추질환, 말초신경질환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종양, 두부외상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디스크, 요통, 척추질환, 척추종양
성형외과 031-560-2330	최승석 이장현 류재만 하영인	화,목,토 월,수 월,금	화 월 수	해위장기연수 악안면 및 미용성형 외상,반흔,일반성형 일반성형
외과 소아외과 031-560-2290	남영수 이흥기 박현겸 박재정 김민규	월,수 화,목 금 토 금	목 수,금 월,수 화,금	대장항문병, 유방암, 갑상선질환 혈관외과(대동맥, 복부동맥, 하지상지경동맥) 간담도질환, 복강경 수술 성인탈장(복강경)수술, 외상 상부위장관질환, 복강경 위 절제술
안 과 031-560-2350	이운정 조희운 성민철	화 월,금	월,목 수	안성형, 미용성형, 눈물길 수술, 사시, 백내장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병망막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출장
피 부 과 031-560-2280	유희준 김정수 박경태	월,화,금 수,목,토 화	화,목 월,수 수,금	무좀 및 조갑백선, 피부알레르기질환 피부미용, 피부외과, 소아피부질환 일반 피부과질환
이비인후과 031-560-2360	이승환 정진혁 민현정 지용배 김윤정 이동욱	월 화 목,금 월,수 화 토	월,목 화,금 화 수 금 월,목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러움증 비내시경수술,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만성중이염, 어지러움증, 난청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비중격만곡증, 외비성형, 비굴골절, 비염, 부비동염
비뇨기과 031-560-2370	최홍용 문홍삼 손영우	월,목 수,금 화,토	화,목 월,수 금	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 종양 전립선비대증, 배뇨장애, 요실금, 남성과학 전립선질환, 결석, 요실금, 요로손상, 성기능장애
재활의학과 031-560-2380	장성호 한승훈	월,화,금 수,목	월,수 화,목,금	근골격계,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근골격계, 소아재활, 뇌질환
치과 031-560-2660	박원희 심광섭	월,화,수,목 금	화,수 목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턱알괴식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통증클리닉 031-560-2095	심재항	월,수,금	월,금	요통,관절통,만성통증,암성통증, 통증질환

*2010년 11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11 12

2010 November
December



1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예다미 중창단
김정웅 지휘자(경희대 대학원 성악 졸)
11.5(금) 12:30
본관 1층

11.5 FRI

2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황재경 목사(Grace Christian
College 음악박사) 외 다수
11.12(금) 12:30
본관 1층

11.12 FRI

3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안명진(violin-비엔나국립대학) 외 8인
11.19(금) 12:30
본관 1층

11.19 FRI

4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아카펠라와 오카펠라 연주
유한나 외
11.25(목) 19:00
본관 1층

11.25 THU

5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카리나 연주
박혜진 외 5명
11.26(금) 12:30
본관 1층

11.26 FRI

6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및 행사
루게릭병의 진행단계별
재활운동 및 연하 장애 관리
김태근 교수(재활의학과)
11.27일(토) 09:30
본관 1층

11.27 SAT

7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11.29(월) 19:00
본관 1층

11.29 MON

8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이명화(백석대 피아노 졸 피아노 독주)
12.3(금) 12:30
본관 1층

12.3 FRI

9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황재경 목사(Grace Christian
College 음악박사) 외 다수
12.7(화) 19:00
본관 1층

12.7 TUE

10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카리나 연주
박혜진 외 5명
12.10(금) 12:30
본관 1층

12.10 FRI

11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안명진(violin-비엔나국립대학) 외 8인
12.17(금) 12:30
본관 1층

12.17 FRI

12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및 행사
루게릭병 송년회
12.18(토) 10:00
본관 3층 강당

12.18 SAT

10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아카펠라와 오카펠라 연주
유한나 외
12.24(금) 12:30
본관 1층

12.24 FRI

11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12.27(월) 19:00
본관 1층

12.27 MON

10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재원 교수(소아청소년과)
키론트리오(바이올린, 피아노 연주)
12.31(금) 12:30
본관 1층

12.31 FRI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종합검진센터가 2010년 12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개인 및 기업체, 외국인, 해외교포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강검진센터인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종합검진센터가
양 · 한방 동시검진을 통하여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영어 · 러시아어 · 중국어 · 몽골어 전문 코디네이터에 의한
1대 1 안내시스템, 고객편의를 위한 주차 전담직원의 대리주차 등
보다 편리하고 특화된 최상의 서비스와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한 번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